

# ‘정동’을 탐구하다

정동(情動), 마음의 움직임<sup>5)</sup>

이종찬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

5) 『문화과학』 86호(2016년 여름)에 발표한 「정동, 마음의 움직임」(줄고)을 다듬고 축약한 글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진보적 지식담론 영역에서 ‘정동’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꽤나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한자어로는 ‘情動’으로 표기되는 개념어 ‘정동’은 글자 그대로 풀어 쓰자면 ‘마음(情)의 움직임(動)’ 정도로 칭할 수 있을 텐데, 처음 마주하게 된다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친숙하지 않은 이 개념어가 어느새 이 땅의 비평담론 영역에서 빈번하게 통용되고 나아가 비평 용어로서 하나의 관용어 수준으로까지 자리매김한 것을 보면 그 현상의 전후 맥락을 한번쯤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정동 대세론’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정동은 요즘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정동 연구에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시도한 이로는 권명아와 그가 속한 연구 모임 ‘아프-꿈’(aff-com)을 꼽아볼 수 있다. 아프-꿈은 정동의 영어식 표기인 ‘affect’와 ‘공동의’·‘공통적인’의 의미를 담고 있는 ‘commune’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들은 ‘정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동(affect) 역시 여전히 번역어로서도 공통어를 갖지 못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정동을 ‘함께-있음과 맞물려 있는 부대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나갈 것이다.”<sup>9)</sup>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아프-꿈이 정동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 애초부터 ‘공동체’(community)라는 문제들을 이미 그 내부에 끌어안고 있다는 점이다. ‘함께-있음’, ‘부대낌’이라는 표현을 보라. 아프-꿈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개별적 개인의 주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나아가 집합적인 것이다. “즉 마음의 상태라고 간주되는 외로움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이어져 있음(결속)/없음(결속의 부재)이나, 어딘가에 소속됨과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동이라는 이론적 어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태(state)라는 현실의 문맥 위에서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동은 ‘내적이면서도 동시에 비인격적인’ 것이다.”<sup>10)</sup> 개별 주체에 국한되지 않은 집단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마음의 움직임(정동)을 규명해보는 것이 정동 이론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이다.

현재 갈무리 출판사에서는 ‘아프-꿈 총서’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정동 연구와 관련한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 지면에서는 최근 출간된 『정동 이론』<sup>11)</sup>을 거칠게나마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아직 아닌 것들의 목록: 『정동 이론』

멜리사 그레그와 그레고리 시그워스가 대표 편저한 책 『정동 이론』의 영문 원제는 ‘정동 이론 리더’(The Affect Theory Reader)이다. ‘리더’(reader)라는 타이틀이 명시하고 있듯 이 책은 ‘정동 이론’이라는 연구 분야에 처음 입문하려는 이들에게 적합한 책이다. 다양한 필자들이 쓴 열다섯 쪽지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정동 이론』은 하나의 체계적인 저작이라기보다는 정동 이론에 대한 각자의 키워드들을 병렬시켜 놓은 모음집에 가깝다.

9)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5쪽.

10) 같은 책, 16쪽.

11)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적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 외 역, 갈무리, 2015.

정동은 과정 중에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동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일단은 “정동은 ~이다.”라는 적극적 규정보다는 “~은 정동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접근법을 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연구의 중요 인물인 로렌스 그로스버그는 책 말미에 실린 편저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동 이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경향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문제는 정동이 단지 너무 많은 영역들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 정동은 너무나 자주 ‘마술적인’ 용어로 기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가 이를테면 비-재현적인 효과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정동’이라고 말하면 됩니다.”<sup>12)</sup> 정동이라는 개념이 담론영역에서 지나치게 불명료하게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그로스버그가 꼬집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그것은 딱히 언어화하기 힘든 “비-재현적인 효과”를 한 단어로 손쉽게 설명해내는 “마술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동은 사실상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텅 빈 기호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와 더불어 그로스버그가 탐탁찮아 하는 연구경향들 중 하나로 꼽는 것이 이른바 ‘정동의 자극-반응 모델’이다. “정동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이론 연구들 속에는 정동이 신체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성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당신이 이런 불빛들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어떤 종류의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식이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sup>13)</sup> 그로스버그가 보기에 이 경우 정동 이론은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덫에 걸려들고 만다.

이 같은 그로스버그의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몸’(body) 담론을 둘러싼 일련의 경향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준다. 영국의 미디어 연구자 벤 하이모어는 “고유한 몸(The body)이 텍스트의 몸 안에서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았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담론이나 문화에게 속박당하지 않는(덫에 걸리지 않는) 몸”을 신비화하고 자연화하려는 경향과 자신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sup>14)</sup> 우리의 몸은 항상 그리고 이미 ‘담론’과 ‘문화’의 영역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몸이다.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정동은 무엇인가. 편저자들은 일단 다음과 같은 정식을 제출하고 있다. “가장 의인화된 방식으로 말하자면 정동은 의식화된 앎 아래나 옆에 있거나, 또는 아예 그것과는 전체적으로 다른 내장의(visceral) 힘들, 즉 정서(emotion) 너머에 있기를 고집하는 생명력(vital forces)에 우리가 부여하는 이름이다.”<sup>15)</sup> 이로부터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정동은 의식화된 앎 아래나 옆에 있다.’ 이는 정동이 의식이 아닌, 의식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작용·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동은 정서 너머에 있다.’ 여기서 정동은 정서와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번역어인 ‘정서’의 영어 원어에 입각하여 접근해보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emotion’은 ‘바깥·외부’를 의미하는 접

12) 로렌스 그로스버그, 「정동의 미래」, 492-493쪽.

13) 같은 책, 495쪽.

14) 벤 하이모어, 「뒷맛이 씹쓸한」, 207쪽.

15) 그레고리 J. 시그워스, 멜리사 그레그, 「미명(微明)의 목록[창안]」, 14-15쪽.

두어 ‘e(x)-’와 ‘움직임’의 어근을 가진 ‘mot’ 두 단어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로써 종합하면 ‘바깥으로 나감’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어원에 주목할 경우,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에 방점을 두는 ‘정동’에 비해 ‘정서’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한 ‘결과’의 차원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해 보자면, 정서와 달리 정동은 마음의 상태가 A1에서 A2로 이동한 ‘결과’의 측면(A1→‘A2’)이 아니라 A1에서 A2로 이동하기까지 동요(動搖)의 순간(A1‘→’A2)에 주목한다. 그 마음은 최종적으로 A2라는 결과로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동 여부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라 아메드가 「행복한 대상」에서 사례로 든 시인 아마 아타 아이두(Ama Ata Aidoo)의 산문시 『우리 자매 킬조이』가 우리의 논의에 도움이 될 듯하다. 시의 화자인 흑인 여성 씨씨(Sissie)는 비행기 안에서 백인 여승무원으로부터 다른 흑인들이 앉아있는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청받는다. 하지만 그 흑인들은 씨씨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순간 그녀는 망설인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리한다. 거북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씨씨는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의 흑인 승객들과 합석하라는 스튜어디스의 부당한 요청을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라 아메드는 다만 씨씨의 이 의식적 선택 직전의 “망설임의 순간”에 주목하고, 비록 현실화되지는 못했는지언정 그 찰나적 순간에 “정치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간과한다.<sup>16)</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동은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먼저 1)정동은 전(前)의식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씨씨가 스튜어디스의 요청 앞에서 망설임의 정동에 휘말린 것은 그녀의 의식적 차원의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차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약간의 주저함 끝에 씨씨는 스튜어디스의 요청에 순순히 따른다. 정리하자면 그녀의 몸은 거부했으나 그녀의 계산적 이성 은 수락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씨씨에게는 망설임이라는 마음의 움직임 또한 분명히 있었다. 정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이 아니라 바로 그 망설임의 순간 발생한 마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나아가 이 망설임으로부터 2)정동은 아직 오지 않은, 그렇지만 앞으로 도래할 미래적 사건의 잠재성을 긍정한다.

어딘지 모르게 근사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어감과 달리 정동은 사실 피곤한 것이다. 미세한 감정들의 파고에 시시각각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령 엘스페스 프로빈은 수치 혹은 부끄러움(shame)이라는 정동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서 그것을 글로 쓴다는 작업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사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는 자신의 수치를 굳이 글로 옮기려 한다는 작업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 말하고는 정동에 대한 글을 너무 많이 읽어서 ‘건강염려증’에 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다소 초조해 한다. 하지만 그의 우려처럼 그것이 쓸데없는 건강염려증에 불과할까. 중요한 것은 ‘수치의 쓰기’(writing shame)가 “노출의 수치”, 즉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비롯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 “뭔가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엘스페스 프로빈은 ‘수치의 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윤리적 실천의 일부”로 끌어안을 수 있어

16)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75-76쪽.

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7)</sup> 우선 그는 글쓰기가 아카데미즘의 영역에서 “연구서 작성”의 문제로 줄아 든 것에 대해 한탄한다. “정동에 대한 최근 논문들은 ‘느낌’이 부족한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sup>18)</sup> 이에 대해 엘스페스 프로빈은 ‘느낌’이 부족한 연구서 쓰기 방식을 대신하여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의 글쓰기 방식을 대비시키고 있다. 어떠한 추상적인 서술도 거부하는 레비의 글은 “정확성(precision)”이라는 특징을 결정적으로 지닌다.<sup>19)</sup>

실제 프리모 레비가 겪었던 일로서 엘스페스 프로빈이 언급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1945년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프리모 레비는 이후 1982년 봄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 그는 어느 이탈리아 기자와 그 길을 동행하게 되는데 그 기자는 “아우슈비츠 시의 일상성(normaility)”을 지적하며 레비에게 “오늘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겠군요”라고 말한다. 기자의 이 말이 레비의 내면을 깊숙이 가격한다. 숨을 고른 뒤 레비는 대답한다.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는 또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공간이기도 했었다고, 당연하게도 아니면 놀랍게도 거기에는 식당과 나이트클럽과 학교가 있었다고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생활하고 먹고 쇼핑하고 춤추는 장소로서의 아우슈비츠가 갖는 일상적인 실상”에 대해 우리들은 이상하리만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레비의 아우슈비츠’와 ‘우리의 아우슈비츠’ 사이에 놓인 간극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것이었다. 아우슈비츠에 대해 이미 충분히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해왔던 우리는 일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만다. 레비의 ‘정확한’ 글쓰기는 우리에게 정확히 그 지점을 열어 보여주고 있다.<sup>20)</sup> 정동의 현장 그리고 정동의 글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프리모 레비와 그의 작업을 능가하는 사례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동 그리고 정동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내리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것이 정동 연구의 한계라기보다는 정동 이론의 방법론 자체가 애초부터 ‘구성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의 두 편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정동 이론이 “아직 아닌 것들(not yet)의 목록 혹은 목차”라고, 다시 말해 “정동 이론에서 나오는/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선들을 미명들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며, 그 선들의 어떤/모든 목록은 영원히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다.<sup>21)</sup> ‘아직 아닌 것들’, ‘미명(微明)’, 그리고 ‘영원히 불완전한’ 등과 같이 하나의 일관된 의미론적 계열의 단어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정동 이론은 ‘무엇’(what)이 아닌 ‘어떻게’(how)의 물음에, 즉 유일무이한 본질적 ‘실체’가 아닌 다양한 표현적 ‘양태(들)’의 문제에 훨씬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는 첫 글 「미명의 목록[창안]」에서 저자들은 “정동은 사이(in-between-ness)에서 태어나고, 누적되는 곁(beside-ness)으로서 머문다.”<sup>22)</sup>라는 문장을 통해 이를 압축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다. ‘사이’ 그리고 ‘누적되는 곁’. 말하자면 마이너스를 모르는 ‘플러스의 세계’.

17) 엘스페스 프로빈, 「수치의 쓰기」, 126-130쪽.

18) 같은 책, 130-131쪽. 19) 같은 책, 149쪽.

20) 같은 책, 147-148쪽.

21)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11쪽.

22) 그레고리 J. 시그워스, 멜리사 그레그, 「미명(微明)의 목록[창안]」, 15쪽.

‘사이’와 ‘누적되는 결’의 세계, 또는 ‘플러스’의 세계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각종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해둔 뒤 시간과 장소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서도 손쉽게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편의상 ‘클라우드의 세계’라 부를 수 있겠는데 이 클라우드 공간 안에서 정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 정보와 정보의 사이에 틈새의 정보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은 하나 둘씩 무한하게 누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 세계의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지기도 한다. 비판론자들은 정보 세계의 풍요로움 대신 현실 세계의 부박함 쪽에 현미경을 들이대곤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소위 ‘디지털 프롤레타리아트’들이다. 아무리 빈곤할 지언정 디지털 기기 하나쯤은 손에 쥐고 사각의 프레임 속에 고개를 처박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들. 비판론자들이 보기에 그들 디지털 프롤레타리아트들은 ‘빈곤’이라는 자신의 유물론적 현실을 ‘풍요로움’의 미적 가상(假想)들로 거뜬히 대체시키는 이들이다.

정보 세계의 풍요를 찬양하는 ‘클라우드의 세계’ 그리고 미명의 목록(창안)에 주목하는 ‘정동 이론의 세계’. 양자는 형식논리상 묘하게 서로가 서로를 닮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정동 이론은 정보 세계의 속 편한 낙관주의적 입장에 쉽사리 자신의 판단을 전부 내걸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동 이론의 가장 주된 질문이 “약속인가, 위협인가?”<sup>23)</sup>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 희망과 절망 혹은 낙관과 비관 양자의 가능성의 경우를 동시에 품고 있는 질문이다. 로렌 벌랜트에 따르면 그것이 낙관주의가 애초에 의미하던 바였다고 한다. “모든 애착은 낙관적(optimistic)이다. 이 말은 모든 애착이 낙관적으로 느껴진다는 뜻이 아니다.” 꼼꼼한 역자는 ‘optimistic’에서 ‘ops’ 혹은 ‘ob’라는 두 단어의 어근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각각 ‘힘이나 자원’ 그리고 ‘앞’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낙관적’이라는 말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혹은 바로 곁에 있음(근접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sup>24)</sup>

낙관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낙관주의는 긍정과 부정 양쪽 모두의 가능성을 포괄한다. 한편 정동 이론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이다. ‘행복’의 영어 표현은 ‘happiness’인데 여기서 ‘hap’은 어원학적으로 ‘운(chance)’이라는 의미와 연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애초에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의미했던 게 아니라 흥미롭게도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긍정과 부정 모두를 포괄하는 ‘우연성’ 그 자체를 강조하는 말이었다.<sup>25)</sup> 이 우연성에 대한 강조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성에 대해 주목을 요하게 만든다. 시간의 흘러감을, 그것의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시간성’의 조건에 대해 말이다. 다시 말해 한 번 흘러보낸 우연적 시간은 그것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이유로 인하여 우연이 되는 것이다. 우연은 결코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놓쳐버린 무언가는 상실감이라는 형태로 사후적으로 뒤늦게 우리를 가격한다. 상실한 무언가는 이를테면

23) 같은 책, 30쪽.

24) 로렌 벌랜트, 「잔혹한 낙관주의」, 161-162쪽.

25)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58-59쪽.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정동 이론은 이 유연성(시간성)의 기본 전제를 공유한다.

정리하자면, 정동 이론은 ‘아직 아님’의 미명들, 그로부터 비롯되는 무한의 가능성을 맹목적으로 긍정하지 않은 채 그 무한의 가능성 안에서 시간성의 조건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무한의 가능성’은 관념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역사는 이러저러한 현실의 조건들로 묶여 있는 지극히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과 결단은 1회적인 것이며 결코 무한하지 않다. 무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동 이론이 낙관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 정동 이론의 낙관은 이를테면 ‘낙관을 위한 낙관’이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차라리 비판의 현실을 관통한 뒤의 낙관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 낙관은 “역사는 우리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푸코적인 냉소적인 가정<sup>26)</sup>을 배면에 깔고 있는 낙관이어야 할 것이다. 그로스버그가 “저는 항상 희망을 봅니다.” “나는 잠재적인 것을 믿어요.”라고 말할 때, 그리고 “여하튼, 나는 희망적이어야 합니다.”라고 굳이 한 번 더 힘주어 말할 때, 우리는 정동 이론의 ‘낙관’(주의)에 대해 두 겹의 층위에서, 한 번 더 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sup>27)</sup>

## 나가며

문화연구의 최근 경향이 정동 연구에 주목하게 된 상황을 일컬어 문화연구의 ‘정동적 전회’(affective turn)라 표현하곤 한다. 비판성을 중요시 여기는 정치적 항쟁의 장으로서 문화연구가 정동적 전회 이후 ‘정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시선을 향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정치가 이전까지 보이지 못했고 들려주지 못했던 삶의 장소들을 가시화(可視化)/가청화(可聽化)하는 것이라 한다면 정동은 바로 이 비가시화/비가청화의 영역들에 보다 정교한 불빛을 비쳐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정동은 ‘비공식적’(informal) 차원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배제되어 온 정치의 공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렇게 배제된 이들은 소위 ‘담론적 자원’(discursive resources)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질문. 그들은 어떤 ‘어휘’를 구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질문이다.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해당 담론 영역에서 아주 ‘예의 바른’ 방식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의 ‘톤’(tone)은 어떠한가? 이는 말하고 쓰는 그들의 언어 방식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그들에게는 소위 ‘합리적’이라고 통용되는 말하기 방식, 즉 감정은 억제하고 발화는 명료해야 하며 또 말은 간결해야 할 것 등의 요구 사항들이 암묵적으로 강요된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보다 사용되는 어휘나 말하기의 톤과 같은 ‘형식’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배제의 현상이야말로 정동, 그리고 ‘정동의 정치’의 무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정치의 영역에서 정동의 문제의식은 날로 중요해져만 간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웬디 브

26) 로렌스 그로스버그, 「정동의 미래」, 522쪽.

27) 같은 책, 522-524쪽.

라운은 '상처 난 애착'(wounded attachment)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사회의 정치적 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종의 노력들을 경주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것이 자주 동화와 배제의 프레임을 동반한 폐쇄적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귀결되곤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상처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오인된 애착 대상을 발견하게 되는 셈이다. 상처로부터 기인한 애착. 애착이 된 상처. 정동 이론은 이 기이한 감정 전환의 수수께끼를 탐사하는 하나의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